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연속성의 트랜스 미의식에 관한 연구

양희영* · 이경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a Trance Aesthetic Consciousness of Continuity in Contemporary Fashion

Hee-Young Yang* · Kyung-Hee Lee**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08. 5. 21, 심사(수정)일: 2008. 7. 5, 게재 확정일: 2008. 9. 10)

ABSTRACT

Since the late of 20th Century, philosophy, art, and aesthetics have attention to the movement of object that persue the dynamics and qualitative change, not existing fixed and quantitative object. Qualitative continuity, including discontinuity of specific spot and surface that occurs sudden change, is distinct characteristics considered in contemporary lego civilization, which combines and disperses according as various purpose among the different elements and objects. Therefore, I studied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qualitative continuity that creates the change and the differentiation continuously through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continuity expressed in contemporary fashion" of my preceding paper.

This paper is the following study of above mentioned paper, and investigates about aesthetic consciousness leading to the various change. This is intends to consider the trans-aesthetic consciousness that accepts dynamic movement and change the different object and reforms new relationship continuously. This studies' conclusion is as follows; 1) sublimity - infinity, de-constructive, excessive 2) jouissance - functional, structural 3) paradox - perceptual, spatial.

A study about the trans-aesthetic consciousness would help to offer philosophical basis, and make a change building aesthetic foundation in explaining various relationship like as phenomenon of the retro, neo, post, fusion expressed since the late of 20th Century.

Key words: intuition(직관), aesthetic consciousness(미의식), trans aesthetic consciousness(트랜스 미의식), sublimity(승고), jouissance(향유), paradox(역설)

I. 서론

20세기 후반 이후 철학과 예술, 미학 분야에서는 기존의 정태적이고 양적인 대상으로부터 동적이고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대상의 움직임으로 연구의 방향이 선회하고 있다. 따라서 한정되어진 분석틀을 이용해 사물의 특성을 고찰하고 분류하였던 기존의 이성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애매모호하고 불확정적이며 비결정적인 유기적 변화를 인식하는데 ‘직관’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로버트 루트 벤스타인(Robert Root Bernstein, 2007)¹⁾은 가장 위대한 과학자들의 이론조차도 사실은 설명하기 힘든 직관에 근거하였으며 직관을 통해 인식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여 새로운 과학적 법칙을 이끌어내는 연역적인 방법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사물에 대한 뛰어난 관찰력에 근거하고 있다고는 하여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내는 능력은 바로 무의식과 관련된 직관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직관과 뛰어난 관찰력이 결합되어진 통합적 정신체계를 통찰력이라 하였으며, 철학자, 과학자, 미학자는 물론 예술가들에게도 통찰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연속성의 조형적 특성’이라는 선행연구를 통해 이성적 인식의 사유를 넘어 변화와 차이를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유기적 특징인 질적 연속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베르그송(Henri Bergson)은 지속적인 변화를 유발하는 대상인 인간이 자아를 포함한 다른 대상의 움직임과 변화를 인식하는 데에는 지성이 아닌 직관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러한 이론을 계승, 발전시켜 들뢰즈(Jill Deulze)는 직관을 통한 대상의 인식과 더불어 자아가 감정이입을 통해 타자로 변화하는 ‘되기(becoming)’와 변화와 차이가 발생하는 ‘사건, 시뮬라크르’ 이론 등을 발표하였다²⁾. 뉴턴(Isaac Newton),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과 같은 과학자들이 직관을 통해 인식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새로운 과학적 기틀을 마련하였다만, 베르그송의 사유를 계승한 들뢰즈의 이론은 비가시적인 감각적 영역으로 인식되던 것들을 시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연구자는 상기의 선행연구를 통해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직관과 관련된 감각적 영역인 질적 연속성의 특성을 현대 패션을 통해 가시화하였다.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연속성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미의식에 대한 고찰로서 특히 직관을 이용하여 변화나 차이를 인식하는 질적 연속성의 개념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변화를 의미하는 용어인 트랜스(trance)를 이용하여 이를 트랜스 미의식이라 명명하였다. 본래 트랜스 의식은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본 논문은 예술의 한 분야인 의류학에서의 변화와 차이를 드러내는 질적 연속성에 대한 미적 특성에 대한 고찰이기 때문에 기존의 미의식(aesthetic consciousness)에 트랜스를 결합하여 트랜스 미의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연구 방법은 롱기누스(Longinus), 료타르(Lyotard), 칸트(Kant), 레비나스(Levinas), 베르그송과 들뢰즈 사유에 대한 철학관련 서적과 이들의 이론에 대한 선행 연구 논문, 패션 관련 서적 및 선행연구 논문, 패션 잡지, 예술작품분석 논문 등의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한 이론연구와 패션잡지, 인터넷 사이트, 패션 전문 서적 등에서 발췌한 실증자료 분석을 병행하고자 한다. 연구 시기는 선행연구인 “현대패션에 나타난 연속성의 조형적 특성”이 연구시기를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제한하였으므로 이 논문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지는 이번 연구 또한 동일한 시기인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직관과 미의식, 트랜스 미의식은 무엇인가
2. 현대 패션의 연속성에서 고찰되어지는 트랜스 미의식은 무엇인가

II. 트랜스 미의식

트랜스 미의식은 지속적인 변화를 발생시키는 감각적인 분야와 관련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먼저 베르그송의 이론을 바탕으로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을 인식할 수 있는 직관에 대해 살펴보고 미의식과 트랜스 미의식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수행하였다.

1. 직관

베르그송의 사유는 서양 철학사에서 현대 프랑스 철학의 출발점으로 인식되어진다. 그는 동시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실증과학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실재를 대상으로 형이상학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그는 ‘분석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관에 의해서 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일한 실재가 시간을 통과하는 우리의 인격, 즉 지속하는 자아’라고 하여 직관에 의해 인지 가능한 지속이론을 사유하였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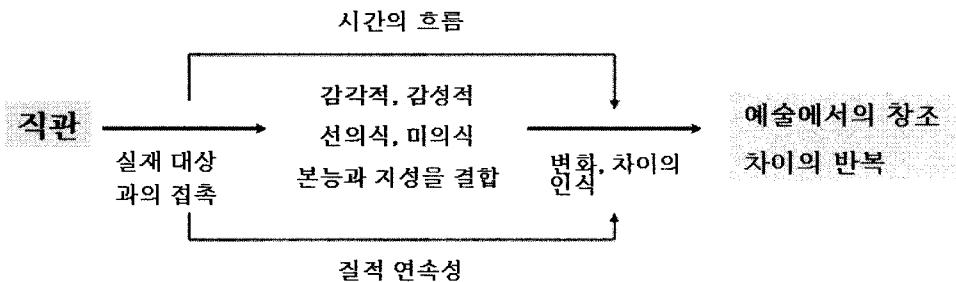
지성은 대상의 외부에서 대상에 관한 많은 견해를 취하고 대상을 자기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반면, 본능은 대상 속으로 파고든다. 인간의 지성은 본능 이외의 인간 내면의 다른 어떤 것과 관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베르그송이 중요하게 인지하는 ‘직관’이다. 그의 철학에서의 직관은 지성과 본능의 상호관계에서 비롯되는데, 즉 지성을 능가하지만 지성이 없다면 본능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본능이 의식화되어 직관으로 나타나려면 지성의 추진력이 있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직관은 대상의 범위를 확장시킨 본능,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본능이다. 본능이 자기 자신에게 실용적으로 관계하는 특수한 사물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에 반해, 직관은 대상들 사이의 공감을 통한 교류에 의해 소로를 확장시키며, 이때 각각의 대상들은 상호침투하고 더불어 창조를 지속하도록 고취시킨다.

베르그송은 직관을 본능이 조화를 이룬 의식화된 공감의 형태로 인지하였기 때문에 원래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운동성을 인식할 수 있는 반면, 지성은 움직이는 전체를 정적인 것으로 만들고 외적으로 부분들과 관계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직관을 통해서는 경험의 흐름, 풍부하고 질적이며 규정되지 않은 것을 획득하며, 지성을 통해서는 양적이고 고정되며 폐마른 것만을 획득한다는 것이다. 지성에 비해 직관이 보다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비실재적인 영역에서 감각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재 대상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관계한다는 사실이다. 지성은 오직 추상의 순간에서 인지하는 비운동적인 것에서 출발하지만, 직관은 연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에서부

터 출발한다. 즉, 직관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변화이다. 직관은 생성, 또는 성장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것 안에서 예측 불가능한 새로움이 단절되지 않은 연속을 지각하게 한다. 이러한 베르그송 철학의 특성을 들뢰즈는 차이 속에서 존재의 적극적인 운동을 다루는 철학으로 파악하였고, ‘베르그송의 철학은 차이의 철학이며 차이를 실현하는 철학이다’라고 피력하였다⁴⁾.

베르그송은 기존의 지성적 인식이 두 가지 종류의 다양성, 즉 공간에 병치된 항들의 다양성(시간의 개념이 무시된)과 지속에 기초하고 있는 상태들의 다양성(시간의 흐름에 의한 변화)을 혼동하고 있다고 하였다. 지속은 질적이고 연속적인 다양성으로 ‘변화’를 특성⁵⁾으로 하며, 근대철학에서 중시한 물질인 형상은 양적이며 수적인 다양성이다. 따라서 이러한 혼동을 바로잡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이 직관이며, 이것이 중요한 것은 공간보다는 시간적 견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풀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사물들 본성의 차이를 인지시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들뢰즈는 본성의 차이를 정도의 차이로 바꾸어 버린 것이 과학이며, 단순한 강도의 차이로 바꾸어 버린 것은 형이상학이라고 하여 올바른 사물 인식에 있어서 베르그송의 직관의 탁월함을 주장하였다⁶⁾.

예술은 내면의 심상에 예술가의 주관성이 개입되어 본래의 심상이 변화되어지고 변질되어지며 이러한 심상의 체험은 다시 관람자의 주관에 의해 변화된다. 심상과 창작과 관람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변화는 논리적인 것으로 설명 불가능하다 하여 스타니슬라브 울람(Stanislaw Ulam)은 ‘초논리’라고 하였고, 로버트 루트 벤스타인(2007)은 초논리에 가장 근접한 개념이 ‘직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직관은 실재 대상과의 다양한 관계에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디지털 예술, 건축, 패션과 같이 대상을 간의 차이와 변화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분야에서 변화와 관련된 트랜스 미의식을 인식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다. 다음 <그림 1>은 직관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림 1〉 직관의 특성

2. 미의식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이후로 근대에 이르기까지 미는 적합성이나 완전성, 합목적성과 동의어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미적 개념이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미는 즐겁고쾌를 유발하는 것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바움가르텐(Alexander Gottlieb Baumgarten)이 미를 '감각적 인식의 완전성'으로 주장하면서 미적 개념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미를 이성보다 하위에 있는 감각적 인식에 상정함으로써 이성의 범주에서 완전히 독립된 것으로 인지하지는 못하였다. 이후 칸트는 미를 인식론이나 윤리학에서 분리시켜 판단력의 범주로 구분하였고 이를 통해 감성적 영역인 미가 이성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게 되었다. 즉, 미의 개념은 동요를 일으키는 것, 변화나 차이를 드러내는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영역까지 확대되어 추의 미나 충격효과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되었다⁷⁾.

미의식(aesthetic consciousness)은 미(美)를 느끼거나 이해하고, 미를 가리어 판단하는 의식⁸⁾이며 미를 창작하거나 감상할 때 나타나는 정신적 의식으로 아름다움을 느끼고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바움가르텐이 미학(美學)을 '감성적 인식의 학문'이라고 정의한 뒤로 미의식은 미학의 가장 중심적 주제가 되었다. 그 이유는 고전미학에서는 초감각적인 미의 이념이 추구된 데 반해 근대미학에서는 인간의 의식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미를 주제로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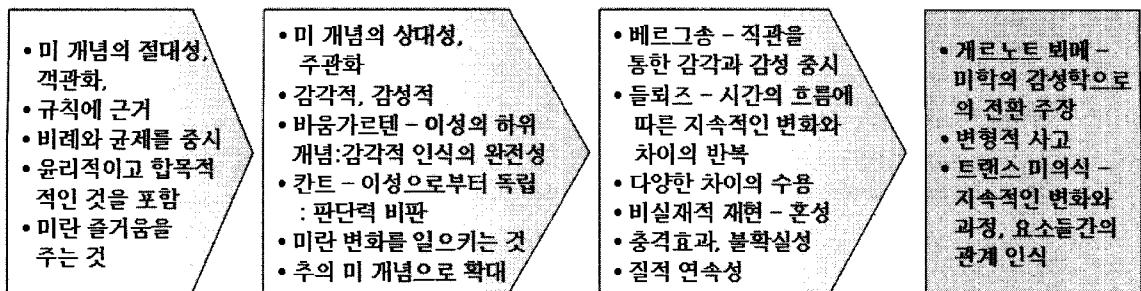
미의식은 도덕적 판단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목적관념에 의해 좌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합목

적성의 실현을 추구한다. 이에 근거하여 I. 칸트는 미의식을 '무관심성'과 '목적 없는 합목적성'이라는 말로 특징지었다⁹⁾. 무관심성은 칸트, 쇠렐러(Schiller), 쇼펜하우어(Schopenhauer)를 통하여 계승, 발전되면서 미학이 철학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상상력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 전통적인 미일뿐만 아니라 숭고·우아 등 여러 가지인 것으로 판명되어 미적 범주의 확대를 가져왔듯이, 무관심성 이론은 미에 대한 인식의 주관화를 선도하였다. 즉 미에 관한 객관적인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상자의 주관적인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주장은 18세기의 취미철학이나 19세기의 미적 대도론을 포함하는 모든 미학이론의 전제가 되었으며, 현대 미학에서도 이러한 주장은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연구자는 현대 광의의 미적 범주에 근거하여 대상간의 다양한 관계성과 지속적인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미의식을 트랜스 미의식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이는 현대의 트랜스 의식이 예술과 같은 미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과 관계하며, 주로 상이한 대상간의 순간적이고 이질적인 결합을 통해 형태나 기능, 공간의 변화나 변형, 전이를 드러내는 것에서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다음 〈그림 2〉는 예술에서의 미 개념과 미의식의 변화를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3. 트랜스 미의식

여러 가지 생각을 연속적, 혹은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가리켜 변형(transforming)이나 변



<그림 2> 미 개념과 미의식의 변화

형적 사고(transformational thinking)라고 한다¹⁰⁾. 생 각이나 감각들은 이러한 변형적 사고를 통해 다양한 표현매체로 변환되어지고 이것이 곧 발명이나 예술과 같은 것으로 형상화되어진다. 변형적 사고는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무는데 일조하고 있는데, 수학과 미술(막스 빌(Max Bill)의 숫자패턴을 이용한 구조적 도식), 음악과 미술(파울클레(Paul Klee)의 음악 이미지 변형작업)간의 협업작업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예술에 있어서 변형적 사고는 대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다양한 감각 기관들 사이의 전통적인 고정관점을 일탈하여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시킨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상이한 영역간의 상호 결합을 통해 하이브리드한 작품이 지속적으로 창조되고 있다. 패션계에서도 건축과 패션, 인테리어 용품과 패션, 디지털 기기와 패션 등 다목적과 다기능적인 제품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지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20세기 후반 이후 디지털 예술에서는 실제 사용가치와 관련 없는 공간과 시간 개념이 제외되어진 다양한 건축과 패션 작품이 창조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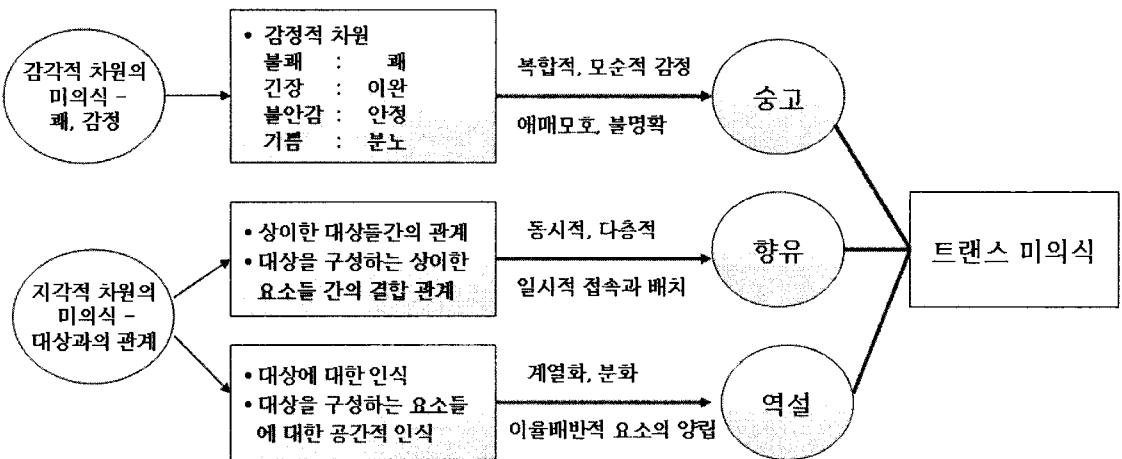
트랜스 의식은 다양한 대상이나 요소들이 혼재되어 이들 사이의 다양한 하이퍼 접속과 해체 현상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이질적인 것들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의식이다. 이러한 의식이 내재된 미래의 새로운 인간형을 트랜스 휴먼이라 명명하며 트랜스 휴먼이 지배하는 미래의 사회에서는 지속적인 변화를 수용하고 긍정하는 트랜스 의식이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¹¹⁾.

트랜스 미의식은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미래

의 트랜스 휴먼이 감각하고 인지하는 미적 의식으로서 기존의 전통적인 정적이고 평면적인 예술작품에 한정되지 않고 유동적이며 역동적이고 가상공간과 같은 탈시간적, 탈공간적인 예술분야에 있어서 나타나는 미의식이다. 이것은 단일 대상이나 동일 상태에서 지각되어지는 미적 인식이 아니라 다양한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감각이나 감정의 변화를 유도한다. 따라서 하나의 감각으로 인지되기 보다는 이중이나 그 이상의 감각인 공감각으로 지각되어지고 다양한 감정적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혼돈이나 복합, 이질감, 무한성 등의 감정을 유발한다.

연구자는 베르그송과 들뢰즈의 이론을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연속성의 조형적 특성' 연구에서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연속성을 지각적 연속성, 공간적 연속성, 신체 경험에 의한 전이적 연속성, 비물질적 정보의 연속성, 환경과의 유동적 연속성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통해 확장성, 전환성, 구조적 가변성, 상호 결합성, 탈구조성의 조형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각각은 패션의 형태와 크기, 실루엣 등과 관련된 의적 특성, 패션구성요소들 사이의 관계, 기능, 패션 구조와 공간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상기의 고찰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변화와 차이를 드러내며 이들을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대상들 간의 관계와 과정에 집중하는 트랜스 미의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대상들 간의 지속적인 차이와 다양한 변화를 드러내고 이를 긍정하는 트랜스 미의식은 해석이나 고착화와 같은 지성이 아닌 본능과 지성이 조화된 직관을 통해 인지가능하다. 직관에 의해 인식되어진 트랜스 미의식은 무의식의 영역인 본능과 이



<그림 3> 트랜스 미의식 분석모형

성적 영역인 지성의 결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비가시적인 환영이나 환상과는 차이가 있다.

다음 <그림 3>은 Ⅲ장에서 활용되어질 트랜스 미의식에 대한 분석모형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미의식은 감각적인 부분과 지각적인 부분이 결합되어진 감성적 지각에 의해 인지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¹²⁾ 트랜스 미의식 또한 이러한 이중적 특징에 근거하여 쾌나 감정과 관련이 있는 감각적인 부분과 대상과의 관련성을 통해서 인지되어지는 지각적인 부분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즉, 본 논문에서는 질적 연속성에서 고찰되어지는 트랜스 미의식을 감각적인 부분에서는 숭고로,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확인되는 지각적인 부분에서는 향유와 역설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III.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연속성의 트랜스 미의식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연속성의 트랜스 미의식은 패션의 형태, 크기, 실루엣과 관련하여 감정적 차원에서의 숭고, 상이한 대상이나 의복 구성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관계나 인식을 바탕으로 한 지각적 차원에서의 향유, 역설로 분류하였다. 이를 다시 무한 숭고, 해체 숭고, 과잉 숙고로서의 숭고, 기능적 향유, 구조적 향유로서의 향유, 지각적 역설, 공간적 역설로서

의 역설로 소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1. 숭고(sublimity)

숭고는 일반적으로 존엄하고 거룩하다는 뜻으로 위대한 것, 압도적인 것, 격정적인 것 등을 의미한다. 이것은 놀라움이나 경탄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위대한 자연현상이나 인간 내부의 강렬한 파토스(pathos) 등을 가리킨다¹³⁾. 또한 쾌락과 고통, 기쁨과 분노, 감정의 고양과 우울감이 결합된 모순적 감정을 언급한다. 따라서 김민자(2004)는 이것을 포스트모던 패션을 특징지을 수 있는 유일한 예술적 감수성의 양식이라 하였다¹⁴⁾. 현대 예술에 있어서 숭고는 보이지 않는 것, 감춰져 있던 것, 차이나는 것들을 구현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비대상적이고 비형식적인 것에 관여하며, 내용적으로는 기원이 없는 것과 차이나는 것들에 관여한다.

칸트는 숭고의 감정은 불쾌와 혼합된 쾌이며 불쾌로부터 나오는 기쁨이라고 하였다¹⁵⁾. 즉 숭고는 주체의 인식능력과 개념사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숭고에 대한 관념은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을 정확히 표현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숭고에 대한 표현은 숭고의 감정이나 관념과 정확히 일치되지 않으며 단지 간접적인 암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술에서는 구상력으로 파악할 수 없는 '몰형'

식¹⁶⁾적인 특성을 지닌다. 칸트는 외부의 불규칙하고 난폭한 것들을 보고 주체가 느끼는 복잡한 관념을 ‘주체의 숭고’라고 하여 숭고가 보다 주관적인 감정임을 드러내었다.

료타르는 고정관념에 대해 위치전환의 발생 시 고도의 긴장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동적 경험이 충격효과를 발생시켜 숭고의 감정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그는 칸트와는 달리 주체에 매개된 숭고를 거부하고 탈이성적이고 탈의식적인 숭고를 구상하였는데, 주체가 거부되고 남은 것은 결국 물형식적인 대상일 뿐이다. 따라서 숭고는 주체도 대상도 아닌 물형식적인 것의 ‘일어남’, 현전인 ‘사건’이며, 이것은 비규정적이어서 의미의 구상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¹⁷⁾. 따라서 숭고는 사건이 일어나서 형성된 대상을 나타내는 기준의 일상적인 것들이나 아름다운 것들은 제쳐두고, 차이를 생성하고 사건을 발생시키는 놀랍고 비일상적이며 충격적인 결합, 강렬한 효과 등을 추구하여 어떤 것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드러낸다. 숭고는 아무런 규칙 없이 만들어지는 규칙을 창안하기 위해 작업하며 따라서 이질적인 것들이 이질적인 방식에 의해 충돌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1) 무한 숭고

21세기 패션을 삶의 형식으로 인지하고자 하는 의식의 전환으로 인해 인간의 삶과 함께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패션에서는 시뮬라크르의 ‘무한성의 숭고미’¹⁸⁾가 고찰되어진다. 특히 기존의 의복 구성 원리를 파괴하고 새로운 구성 원리를 지속적으로 실험하고 탐구하는 재구성이거나 미구성은 파괴와 함께 지속적인 생성이라는 무한성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숭고의 미의식이 드러난다. <그림 4>¹⁹⁾는 프린(Preen)의 저스틴 손顿(Justin Thornton)과 티아 브렉아지(Tia Bregazzi)의 2004년도 S/S 컬렉션 작품으로 셔츠 칼라를 무수히 연결하여 하나의 원피스를 제작하였다. 이것은 셔츠 칼라가 가지는 단일 형태가 의복 전체로 반복되어 보여지는 프렉탈 측면으로, 각각의 칼라는 동일한 지점에 똑같이 연결되지 않고 원피스 전체를 러플로 장식한 듯이 불규칙하게 결합되어 있다. 결합된 각 부분들은 동일한 모양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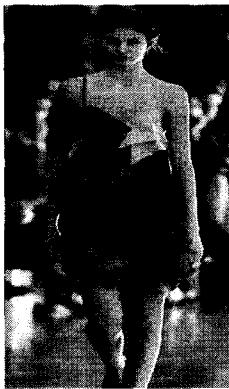
크기의 셔츠 칼라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결합 시색상과 결합 위치 등에 변화를 주어 자유롭고 역동적인 의복 실루엣을 창조하며 의복구성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생성과 차이의 반복을 통해 무한성을 드러낸다.

숭고는 주로 크기의 문제와 연결되는데, 이것은 크고 높은 것이 곧 숭고한 것이라는 롱기누스(Longinus)의 숭고론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칸트의 숭고론에까지 이어진다.²⁰⁾ 크기와 관련된 숭고의 감정은 의복에 있어서는 불규칙적이고 과도한 주름의 사용이나 오리가미, 공기 주입에 의한 의복 공간의 확장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의복공간을 확장하고 신체를 과장하고 있는데 과거의 표피적인 확장뿐만이 아닌 자체의 조형미를 창조하는 3차원의 입체공간으로의 확장까지도 포함한다. 따라서 신체에 착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를 초월하여 독자적인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오히려 신체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신체의 확장을 통한 과시나 의복의 크기와 공간에 오히려 사장되는 신체 이미지에 대한 불안한 감정이 동시에 발생해 감정의 고양과 우울함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숭고의 미의식을 유발시킨다. <그림 5>²¹⁾는 2003년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작품으로, 울통불통하고 불규칙적인 표면을 형성하는 의복은 자연의 협곡이나 계곡에서 보이는 형태와 유사하다. 원피스의 표면을 장식하는 직물의 입체적이고 불규칙한 가로선들은 마치 지층의 단층면과 같은 느낌을 제공하며, 불규칙하게 엉켜있는 끈들과 이리저리로 휘감기며 풍성한 주름을 만들어내는 원피스 하단은 착용자를 응대하고 숭고한 자연의 일부분으로 흡수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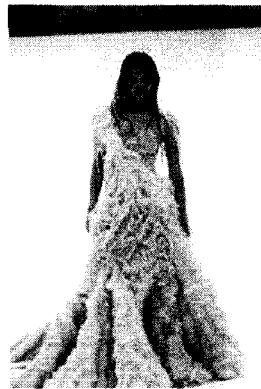
2) 해체 숭고

전통적인 의복구성 원리를 파괴하고 일탈하는 해체는 이질적인 조합이나 결합을 수행하는 ‘새로운 생성’으로의 무한한 ‘윤회적 반복’²²⁾을 수행하기 때문에 비가시적인 과정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숭고의 미의식과 관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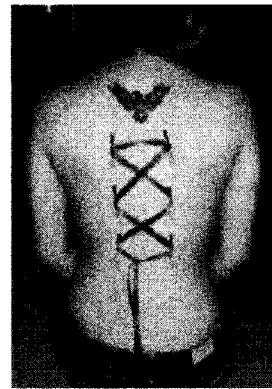
해체 숭고는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대상으로부터 일탈하여 다양한 사물들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그림 4〉 Preen,
2004 S/S



〈그림 5〉 Alexander
McQueen, 2003 S/S



〈그림 6〉 신체 피어싱,
2003



〈그림 7〉 Hussein
Chalayan, 2003 F/W

통해 항상 새로운 것들을 생성하는 들판의 '되기(becoming)'와 유동적 공간을 창조하는 재구성이나 미구성, 블러링(blurring), 블립(blob)²³⁾ 등의 구성방식에서 잘 드러난다. 이것들은 고정되고 확정적인 대상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이질적인 차이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는 '시뮬라크로'인 동시에 재현의 공간을 해체하는 '형상적 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드레스의 되기 중 신체의 되기 전략은 생명력을 가진 신체를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상흔이나 문신 등을 통해 고통과 미적 욕구 충족에 따른 쾌락의 감정이 동시에 표출되는 숭고의 미의식이 드러난다. 〈그림 6〉²⁴⁾은 등에 구멍을 내어 이를 끈으로 연결함으로써 신체를 코르셋으로 변화시켰다. 신체 코르셋은 신체를 압박하고 억압하는 코르셋 본래의 기능에서 일탈하여 신체위에 형상화되어진 코르셋의 형태적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신체에 구멍을 내는 자학적 행위를 통해 신체 자체를 코르셋화 함으로써 코르셋의 자학적인 면을 오히려 더욱 부각시켜 고통과 쾌락의 감정이 섞여 있는 숭고의 미의식이 드러난다.

3) 과잉 숭고

과잉 숭고성은 서로 다른 요소들이 혼성적으로 뒤섞여 전통적인 의복 공간을 파괴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복잡하고 불규칙적인 요소들의 혼합은 절

서 이전의 카오스적인 무질서적인 공간으로 의복의 고정되고 확정적인 공간을 해체하여 새로운 창조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이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혼돈의 상태가 아닌 무한한 질서와 가능성을 내포한 과잉 공간으로, 미래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조합에 따른 불안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내포하는 과잉 숭고성이 드러난다.

이질적인 공간을 상호 관입시키거나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유동적 공간을 창조하는 블러링(blurring)이나 블립(blob), 재구성, 미구성에 의한 의복은 베이컨(Francis Bacon)의 그림에서 보여지는 비의미적이고 비재현적인 선, 지역, 흔적, 얼룩들과 같은 '돌발흔적'²⁵⁾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의미적이고 해석적인 영역이라기보다는 무의미적이고 탈해석적인 감각 영역에 대한 표현이다. 혼돈이 극대화되어 전개되는 돌발흔적은 자유롭게 유동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에너지의 유형을 드러내며 특정 시간이나 지점으로 환원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것들과 대립해서 불연속적으로 설정되지 않고 연속적인 에너지의 유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돌발흔적이 나타나는 의복 형태는 기존의 일련의 사고체계를 박탈하며 보는 이에게 당혹감을 주고, 지속적인 변화의 한 부분을 목격하게 된 것에 대한 혼분과 다음에 이어질 변화의 방향을 인지할 수 없는 것에서 발생하는 불안감을 통해 과잉성에서 느껴지는 숭고의 미의식을 유발한다.²⁶⁾

〈표 1〉 현대 패션의 연속성에 나타난 트랜스 미의식 중 숭고의 특성

	중심	내용	형태	의미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연속성
칸트의 숭고	주체의 숭고	주체와 개념 사이의 불일치	몰형식, 복잡 불규칙	과잉, 혼성	과잉 숭고
료타르의 숭고	주체 개념상실 대상만이존재	탈이성적 탈의식적	몰형식, 비규정 불규칙	결여, 무의미, 무한성, 장엄	무한 숭고 해체 숭고

〈그림 7²⁷⁾은 후세인 살라얀의 2003년 F/W 컬렉션의 작품으로, 구멍 난 직물과 지퍼, 끈으로 형성되어 신체 위에서 상호교차하면서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의복을 구성하는 레이어(layer)를 분류할 수 없다. 직물과 끈은 혼합되고 뒤엉켜 있어서 각각의 공간이 유동하고 복수 공간을 형성하며 자유롭게 변화한다. 또한 의복 구성 요소가 분해되어 부정형의 형태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기준의 균질적인 공간을 비균질화 시키고 의복 공간 사이의 경계를 와해시켜 이들을 소통시키고 용해시키고 있다. 따라서 당혹감과 불안감, 다음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혼합되어진 과잉 숭고가 드러난다.

다음 〈표 1〉은 트랜스 미의식 중 숭고의 특성을 간단히 요약, 설명하고 있다.

2. 향유(Jouissance)

레비나스는 세계는 고정적이면서 분할 가능한 사물들의 총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를 수행하는 역동적인 요소들의 혼합물이라 하였다. 요소는 사물들이 나타나고 다시 돌아가는 포괄적인 환경으로서의 세계이기 때문에 형식 없는 내용이며 따라서 요소적인 세계는 실체 없는 성질처럼 향유될 뿐이라고 하여 인간과 모든 대상적 세계와의 관계를 향유로 설명하였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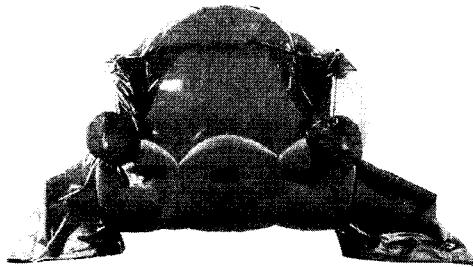
향유는 세계를 우리 밖에 존재하는 대상으로 체험하기 보다는 우리를 포함하는 삶의 환경으로서 체험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우리가 포함된 환경 속에서의 향유를 통해 다른 대상들과 관계를 구성한다. 향유는 감성의 체험으로 나타나는 기쁨과 슬픔, 원기회복, 생기와 같은 경쾌함으로 설명되어지며 향유의 관점에서 삶을 볼 때 주변 사물들의 세계는 그 자체

로 고립된 것이 아닌 존재의 원천이며 만족의 터전으로 체험된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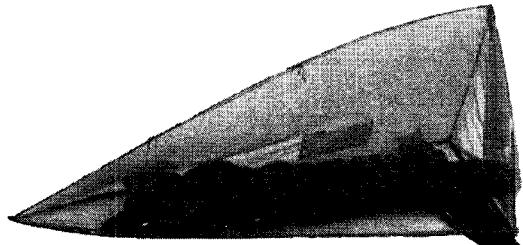
향유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누구의 소유도 아닌 환경을 발견하게 된다. 환경은 요소적인 것으로 시작도 끝도 형태도 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익명적이다. 요소로서의 세계는 익명성과 고정된 것으로 환원할 수 없는 무규정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대상화하거나 도구로 환원할 수 없으며, 요소로서의 세계를 향유하는 신체는 이를 통해 욕구를 충족시키며 즐거움을 얻는다. 그러나 이러한 즐거움은 지속적으로 차이와 변화를 생성하는 요소들의 본성으로 인해 계속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긴장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불확정적이고 무규정적인 세계에 속하는 인간개인도 불확정적이고 무규정적인 존재로서 인식되기 때문이다.

레비나스의 향유개념은 세계를 유용성으로만 인식하지 않으며 삶의 목적 개념으로도 한정하지 않는다. 향유는 인간이 다른 대상과 관계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증폭되어지지만 욕구의 만족과는 차이가 있다. 후자는 소유에 의해 해결되어지지만 향유는 결코 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소유하지 않으면서 만족하는 것’ 그것이 향유적 삶의 역설이다. 따라서 향유는 대상사이의 자유롭고 가변적인 관계성에서 나타난다.

자크 라캉(Jacques Lacan)은 인간이 도달하고 느끼는 다양한 종류의 만족(satisfaction)을 향유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가 말하는 향유는 ‘고통속의 쾌락’을 의미하며 따라서 향유하는 존재는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고통과 어우러진 쾌락, 죽음 충동을 숨기고 있는 쾌락, 고통속의 쾌락을 즐기는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즉 향유는 육체와 정신, 주체 전체가 최대



〈그림 8〉 CP Company, *Jillet*, 1998



〈그림 9〉 CP Company, *Carvan*, 1998 F/W

의 시련을 겪을 때 참을 수 없는 긴장의 경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한계상황이나 과열상황에서 경험하는 에너지의 상태를 의미한다³⁰⁾. 따라서 향유는쾌락이 아니라쾌락을넘어선 상태로서 카타르시스와 같이 생산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에너지이다. 라캉은 인간이 향유한다고 하는 것은 주체가 의식적으로 느끼는 고통이나 쾌감과 함께 무의식이 표출하는 그 순간에 알 수 없는 또 다른 쾌감이 존재하는데, 한쪽에서는 에너지가 방출되고 소진되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에너지가 생겨나서 다시 활기를 띠게 되며 이것이 바로 향유라고 하였다.

1) 기능적 향유

기능적 향유는 패션과 건축과의 통합이나 패션과 가구, 공학 기술, 인테리어 용품과의 결합을 통해 의복의 기능적 확장을 유도하는 것에서 주로 드러난다. 타영역과 패션과의 결합이나 기술과 패션의 결합은 상호 의존적인 동시에 상호 분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위계적 질서나 영토화의 전략은 무의미하다. 특히, 기술적인 결합을 통한 패션 경계의 흐리기는 웨어러블 컴퓨터, 디지털 복식에서 두드러지며 이것은 어느 한쪽도 다른 쪽에 종속되거나 지배되지 않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각자의 경계를 일탈하여 상호 자유롭고 새로운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전환이나 변형을 통해 패션이면서 동시에 거주지고 가구이며 인테리어 용품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하여 어떤 하나의 고정적인 대상으로의 규정이 불가능한 복합체로서 확장을 드러낸다.

이러한 다목적 패션은 씨피 컴퍼니(CP Company)나 자비에 몰랭(Xavier Moulin)과 이즈미 고하마(Izumi Kohama)의 IXI 디자인 그룹에서 주로 발표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공기 주입이나 폴딩 방식, 패스너를 이용한 변형을 통해 기존의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와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복합체이다. 이러한 디자인은 기술과 구성요소들 간의 자유로운 결합을 통해 미래 패션의 발전방향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림 8〉³¹⁾은 씨피 컴퍼니의 현대 유목민을 위한 파카로, 착용자의 필요에 따라 암체어(arm chair)로 부풀려 질 수 있다. 어깨부분과 칼라는 의자의 받침부분을 형성하고 뒤쪽 패널형태가 시트 쿠션(sit cushion)으로 변환되며 소매가 팔걸이로 변환되어진다. 〈그림 9〉³²⁾는 씨피 컴퍼니의 현대 유목민을 위한 디자인으로 매트리스(mattress)와 기체역학적인 일인용 텐트(tent)로 부풀려져서 변형되는 오버코트이다. 이렇게 부풀려질 수 있는 오버코트는 얇은 나일론 망사로 이루어진 외피막이 있는 폴리우레탄(poly-urethane)으로 제작되었고, 그것들을 부풀릴 수 있는 공기 주입기가 있다.

1990년대 이후 패션에서 나타나는 탈경계 현상에 의한 향유는 익명적이고 미규정적인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세계와 인간이 상호 공존하며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패션 자체를 미규정적인 요소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표 2〉 현대 패션에 나타난 트랜스 미의식 중 향유의 특성

개념	레비나스의 향유	라캉의 향유
형식	삶의 모습, 삶의 환경으로 체험	인간이 느끼는 다양한 종류의 만족
내용	비소유, 자유로운 접촉과 해체	비가시적인 에너지의 흐름 감정적 에너지, 무의식의 에너지
세계에 대한 인식	상이한 대상과의 다양한 관계	한계나 파열상황에서 경험하는 에너지 상태
의미	지속적으로 변화를 수행하는 역동적인 요소들의 혼합물	인간외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음
표출	익명성, 환원불가능성, 무규정성	고통속의 패락, 긴장속의 이완
관련성	다른 대상과의 다양한 관계	예술창작활동에서 나타남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연속성	기능적 향유	구조적 향유

2) 구조적 향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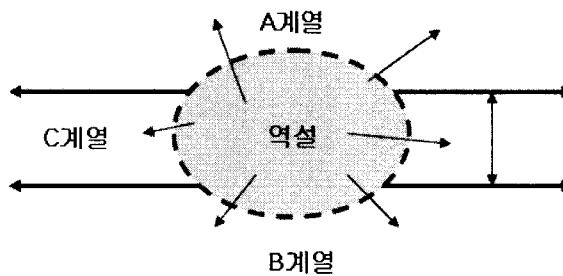
레비나스는 세계와 관계하며 향유하는 신체를 자아의 내면성을 형성하는 동시에 분리가 이루어지는 외연성의 경계라고 하였다.²⁸⁾ 즉, 신체는 내부와 외부가 동시에 부딪히는 역설적인 공간이며 이것은 현재 의복이 형성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신체나 의복을 통해 둘뢰즈의 ‘되기’가 가능한 것은 양면적이고 역설적인 공간인 신체와 의복이 요소로서의 세계와 향유하기 때문이다.

대상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향유는 대상의 사라짐이나 소멸이 아니라 대상에 내재한 에너지의 흐름으로 요약된다. 즉 ‘되기’에서 의복 기능을 수행하는 신체는 신체 에너지에서 의복 에너지로 변화되어 신체의 의복되기를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유기체로서 한계성이 있는 신체보다는 무한한 변화의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는 의복의 유용성과 효용성은 자아와 외부세계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보다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되기’의 기능을 수행하는 의복에서는 가변적이고 실체가 없는 요소들과의 향유에 의한 관계로 인해 탈경계적인 모호성이나 무규정성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구조적 향유는 형태적인 측면에서 각각의 의복 구성 요소들 간의 경계를 해체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흐리게 하는 것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둘뢰즈의 되기는 신체 공간을 의복 공간으로 확장시키며, 의복 공간을 다른 대상으로 확장시켜 이들 사이의 뚜렷한

구별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또한 전통적인 의복 구성 방식을 해체하여 묶기, 두르기, 휘감기 등의 방식으로 의복 형태를 파괴하거나 구성단계에서 의복구성 요소 자체를 아예 생략하여 기존의 공간적 위치를 파괴하고 공간을 자유롭게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고정되고 확정적인 공간을 소멸시킴으로써 각 공간의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모호해진다.

〈그림 11〉³³⁾은 이세이 미야케의 1998년 F/W 컬렉션에서 발표된 작품으로 상의는 한 장의 천으로 바디스를 둘둘 감아서 구성되었기 때문에 팔은 처음의 상태로 고정되고 움직임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신체를 중심으로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였던 의복이 오히려 신체를 압박하고 움직임을 방해하는 대상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며, 전통적인 의복 공간과 형태, 구성요소들 간의 위계적 관계를 해체시키고 이들 사이의 자유로운 배치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림 12〉³⁴⁾은 너비가 다른 다양한 끈을 조합하여 하나의 의복으로 제작한 요시키 히시누마의 2002년 S/S 컬렉션 작품이다. 이것은 기본 바디스와 소매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이 굽이치고 유동하는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부분들은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프레탈적인 측면을 드러내지만 상이한 패턴들의 다양한 조합은 각각의 이질성이 어느 한쪽으로 동화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독자적으로 공존한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끈만을 이용하여 복합적인 형태와 구조를 창조하며 이러한 형태와 구조는 자유로운 위치전환과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유의 미의식이 고찰되



- * A,B,C사이에는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음
- * 각 계열내에는 거리와 차이를 포함하는 동일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의 동일성의 합이 A,B,C를 구성함

〈그림 10〉 역설의 특징

어진다.

구조적 향유는 고정되고 확정적인 영토화과정을 통해 의미화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요소들이 자유롭게 결합, 해체하여 새로운 창조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탈영토화와 형태적, 구조적 혼성체에서 고찰되어진다. 다음 〈표 2〉는 트랜스 미의식 중 향유의 특성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3. 역설

양식이나 상식이란 다양한 계열화의 차이점을 제한하여 어느 특정한 하나의 계열화로 고착화시키는 작업이다. 양식에 반하는 계열화를 통해 양식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들뢰즈는 ‘역설(paradox)’라고 하였다.³⁵⁾ 역설은 통념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doxa’에, 반대한다는 의미의 ‘para’를 합성하여 이루어진 용어로, 의미를 재생산하는 양식과 통념에 반하여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생성하고 새로운 계열화 작업을 수행하며 새로운 사유와 새로운 의미로의 가능성 확대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요소들이 조화되어 있는 이율배반적인 상태를 지칭한다.

역설은 상이한 층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모순과는 달리 서로 다른 두 계열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계열들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어떤 계열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역설적인 요소들은 서로 다른 두 계열에 동시에 속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리좀적 운동처럼 스스로 항

상 비평행의 상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이것은 과잉이며 결핍이고 떠돌아다니는 기표이자 버림받은 기의이다^[36]. 역설적인 요소는 다양한 의미를 생산하고 부여할 수 있지만 아직 현실화 되지 않은 ‘잠재성’으로서의 무의미를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의미의 부재’에 대립하는 것으로 오히려 ‘의미의 과잉’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미는 비결정적이고 불확정적인 자유로운 사유를 가능케 한다.

역설은 다른 방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두 방향과 두 의미를 동시에 취하며 따라서 유일하고 지배적인 하나의 의미나 방향이 절대적인 지위를 점유할 수 없음을 인지시킨다. 또한 상이한 두 방향으로 동시에 나아가며 상황에 따라 다른 쪽 특성을 도드라지게 하여 동일성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특성을 지닌다. 즉, 서로 다른 유형들의 요소를 포함하며^[37] 본질적으로 시간적 차이를 긍정하기 때문에 언제나 과거와 미래로 동시에 분할되는 아이온(iron)적 시간의 무한 분할이고, 열린 공간에서 수행되는 노마드(nomade)적 배분이다. 따라서 역설은 수평적 차이 (하나의 계열)내에서만 고려하는 동일성의 논리 또한 배제하지 않으며 더불어 층위를 달리하는 수직적 차이 또한 포함한다. 그리고 방향성과 위계성이 없는 리좀(rhizome)적 운동을 하고 다양성을 유지하게 하는 창조적 힘으로서 양식화와 코드화와 같은 고착화를 방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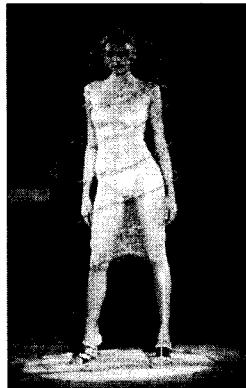
다음의 〈그림 10〉은 이러한 역설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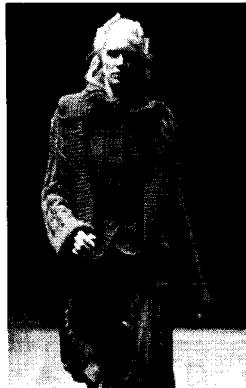
〈그림 11〉 Issey Miyake,
1998 F/W



〈그림 12〉 Yoshiki
Hishinuma. 2002 S/S



〈그림 13〉 Alexander
McQueen, 1999 S/S



〈그림 14〉 Alexander
McQueen, 2006 F/W

1) 지각적 역설

지각적 역설은 본래의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변화시키는 것, 특히 하나의 유기체적 대상이 2개 이상의 복합적인 유기체로 변하여 자연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이종혼합의 합성체가 생성되는 것에서 드러난다. 또한 투명성을 이용하여 내, 외부를 동일공간으로 가시화 시켜 양립 불가능한 두 가지 공간을 한 공간으로 축소시켜 시각적 충격과 함께 시공간이 결합되어 진 새로운 다차원적 공간을 탄생시켜 이질적이면서도 환상적인 감각을 유발시키는 씨쓰루 패션에서도 발생한다. 직물의 투명성은 한 번에 하나의 총위만을 인지할 수 있는 인간의 시각 능력을 내부를 투시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각각의 내부 특성을 드러낸 채 상이한 계열을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각능력의 범위를 초과하여 공간과 시각적 지각 사이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역설의 미의식이 발생한다. 〈그림 13³⁸⁾은 알렉산더 맥퀸의 1999 S/S 컬렉션 작품으로 반짝이는 씨쓰루 소재를 이용하여 제작된 원피스이다. 이것은 의복을 착용 하여 물리적으로 신체를 외부로부터 차단함과 동시에 시각적으로 내부의 은폐되어진 신체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해체주의의 의복의 역설적 미의식을 드러낸다.

본래의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들뢰즈의 ‘되기’는 신체이면서도 의복으로, 의복이면서도 다른 대상으로 표현되어 실재와 표현사이에 균열과 차

이를 생성하고, 하나의 공간에 양립 불가능한 두 가지 요소가 공존함으로써 자기 모순적인 공간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패션의 신체화나 신체의 패션화는 상이한 두 가지 이상의 요소와 특징을 모두 포함하는 역설적이고 양면적인 공간으로 지각적 역설을 드러낸다.

2) 공간적 역설

상이한 둘 이상의 공간이 어떤 특정 부분으로 분할되지 않거나 분리할 수 없는 공간으로 상호 관입되어 있거나 양립할 수 없는 요소들이 한 공간으로 압축되어 다양한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것에서는 공간적 역설이 고찰되었다.

신체와의 관계를 통해 의복으로 규정되어진 공간이 신체로부터 일탈하고 독립적인 공간을 형성하여 독자적인 조형공간으로 인지되어지는 블립과, 비틀림에 의해 하나의 평면이 내부와 외부로 변화하면서 한 평면위에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동시에 존재하는 꼬임은 2차원적인 평면 공간을 3차원적인 역설적 입체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이러한 공간은 두 가지 특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다양성의 공간으로, 무기체인 의복에 유기체의 특성인 유동성과 역동성의 특징을 부여한다. 그리고 의복 구성요소들 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결국은 구조 자체가 없어지는 대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기존의 의복과는 다른 가변적 구조와

〈표 3〉 현대 패션의 연속성에 나타난 트랜스 미의식 중 역설의 특성

		플로즈의 역설
개념	양식에 반대, 계열화를 통해 양식을 무력화	
내용	양식의 재생산	지속적으로 새로운 양식 생산
형식	기의 없는 기표	리듬적 확산, 비평형
의미	의미의 부재	의미의 과잉, 잠재성으로의 무의미
특징	비결정적, 불확정적	동시성, 비위계성, 탈방향성
관계	대상을 바라보는 시지각	대상사이의 자유로운 공간관계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연속성	지각적 역설	공간적 역설

기능을 가진 새로운 의복을 탄생시킨다. 이것은 동일 시간 내에서 인지 불가능한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 내외부 공간의 전이 과정을 드러냄으로써 기존의 경계적인 공간적 개념을 해체하고 자유로운 변화와 소통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시켰다.

〈그림 14³⁹⁾〉은 알렉산더 맥퀸의 2006년 F/W 컬렉션 작품으로, 꼬임 구조를 활용하여 구성된 스웨터이다. 무릎까지 길게 내려지는 스웨터의 밑 부분에 단추가 달려 있어서 칼라에 있는 단추 구멍과 결합되면, 스웨터의 외부가 내부로 숨어들고, 내부가 스웨터의 외부를 형성해 내외부 공간의 위계가 달라진다. 즉 단추를 풀게 되면 외부로서 기능하고, 단추로 결합되면 내부로 숨어드는 의복 공간의 유동적인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 웨어나 웨어러블 컴퓨터는 의복을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의복이라는 공간적인 축소를 통해 이전에는 양립할 수 없다고 인지하였던 의복과 하이테크놀로지를 동일 공간과 구조 속에 양립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패션을 착용한 인간의 신체는 같은 공간속에서 상이한 두 공간적 체험을 동시에 경험하는 역설적인 공간경험을하게 되었다. 또한 비물질적이며 공간화 할 수 없는 정보를 사적 공간인 의복과 결합시켜 실제 공간 내에 가상공간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여 실제와 가상이 혼합된 공간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역설의 미의식이 고찰되었다.

다음 〈표 3〉은 트랜스 미의식 중 역설에 대한 특성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4. 종합적 논의

트랜스 미의식은 변화와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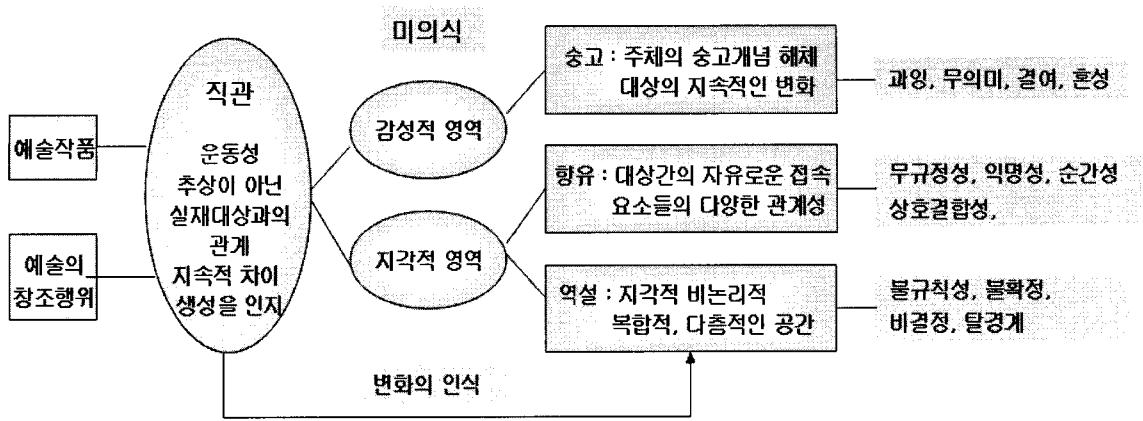
하는 것에서 인지할 수 있는 미의식으로 직관을 통해 파악된 트랜스 미의식은 대상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연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서 인식되어지는 유동적 사유이다.

1) 대상에 대한 시지각을 바탕으로 감정적인 변화나 동요를 일으키는 숭고는 대상과 대상을 바라보는 주체사이에 발생하는 미의식으로 변화와 관련된 복합적인 감정을 의미하는 칸트적 숭고에서 우연한 현전, 사건의 발생, 대상의 지속적인 변화에 집중하여 대상 밖에서 대상을 관조하던 주체개념을 해체시키는 료타르적 숭고로 확대되었다.

숭고는 전체로서의 대상 자체의 크기나 볼륨, 충격적인 변화에 집중하기 때문에 숭고의 감정을 느끼는 주체는 타자로 전락하거나 주체자체가 무의미해졌으며, 따라서 단일 대상이 지속적으로 차이를 생성하고 이질적인 대상들이 순간적이고 우연한 접속과 해체를 반복하는 21세기 디지털적인 트랜스 문화의 감각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트랜스 미의식으로 숭고를 고찰하였다.

단일 대상에 관련된 요소나 상이한 대상들 간의 관계와 공간관계 등 지각과 관련되어진 트랜스 미의식으로는 향유와 역설을 고찰하였다.

2) 향유는 전체로서의 대상에 대한 관점이나 요소들의 총체로서의 요소 하나하나에 집중하던지 간에 직접적인 체험이나 행동과 관련되어진 사유이다. 향유는 하나의 영역에 영구히 포함되어지는 소유가 아닌 대상간의 또는 대상과 주체사이의 순간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만남이며 체험으로 이를 통해 정서적 만족을 구한다. 향유는 대상을 바라보는 주체보다는 대상을 사이의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관계에 집



트랜스 미의식 (탈시간성, 탈공간성)

〈그림 15〉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연속성의 트랜스 미의식

중하는 미의식으로 향유하는 대상이나 요소들은 무한한 가변성에 대한 기대감과 무한성으로 인한 불안감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무의식의 에너지를 포함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와 차이를 생성하는 대상이나 요소들의 존재에 대한 사유로부터 도출된 미의식으로 가시적이거나 비가시적인 변화에 대한 가능성과 잠재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기능적, 구조적으로 가변적이고 열린 구조를 지향하며 새로운 형태와 기능, 구조를 창조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21세기 하이브리드한 대상에서는 '관계성'에 집중하는 향유의 미의식이 고찰되었다.

3) 역설은 본래 지각과 관련되어진 논리적 영역이다. 그러나 21세기의 변화와 차이를 긍정하는 질적 연속성의 사유에서는 비논리적이고 모순되어지는 지각이나 구조, 공간관계가 무수히 나타난다. 이런 관계들 역시 고정되지 않고 결정론적 인식으로 제한할 수 없는 부유하는 의식으로써 상이한 대상들과 다양한 계층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모든 방향으로의 관계성을 수용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양식화나 논리성이 보다 확대되어진 개념이다. 패션에서는 특히 다양한 계층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계층이라 한정할 수 없는 시지각적 관계나 공간관계에서 역설의 미의식이 두드러져 나타나며 무한성과 과잉, 복잡성 등의 의미를 산출한다. 즉 역설은 기존의 움직임

없이 하나의 공간에 고착화되었던 대상이 이질적인 대상과 다층적 공간속에서 자유로이 접속하면서 나타나는 데에 따른 지각적 불능상태로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하며 불확정적인 대상이나 요소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미의식이다.

다음의 〈그림 15〉의 다이어그램은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연속성의 트랜스 미의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구성방식을 실험하고 타 분야와의 적극적인 상호 결합을 시도하는 다양한 현대 패션은 변화 자체를 즐기며 차이를 지속적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관계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의식은 변화와 다차원적인 관계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변화 자체를 생명체의 유기체적인 속성으로 인지하고 이를 수용하고 긍정하는 질적 연속성에 대한 사유는 21세기 공존과 관계지향적인 유기적 사고가 대두되면서 점차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따라서 질적 연속성에서의 지속적인 변화와 차이를 긍정하는 트랜스 미의식은 감각과 감성이 우선시 되는 현대 철학과 미학, 예술분야에서의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지침이 되리라 판단되어진다.

IV. 결론

변화가 발생하는 특이점이나 특이면에서의 불연속성을 포함하는 질적 연속성은 다양하고 상이한 요소나 대상들이 서로 접속하거나 해체하는 현대의 레고(lego) 문명에서 고찰되어지는 특성이다. 21세기의 키워드인 잡 노마드(Job Nomade)과 가상현실, 네트워크 등은 이러한 연속성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개념이며 이것은 다양한 패션 현상을 통해 가시화되어진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복합적인 양상은 기존의 포스트모더니즘적인 감성이나 미의식만으로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이를 포함하는 거시적 개념인 연속성, 질적 연속성의 개념을 통해 조화와 대립, 충돌과 융합, 흡수와 통일과 같은 다층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진다.

따라서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연속성의 트랜스 미의식은 이러한 통시적인 관점에서의 변화를 주도하는 미적 감수성에 대한 연구이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대상들 간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변화를 긍정하는 트랜스 의식을 미적 감수성과 결합시켜 고찰한 것으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송고는 고정되고 확정적인 양적 상태나 형태가 아닌 지속적인 변화를 생성하는 질적 연속성에서 나타나는 미의식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인지되는 미의식이다. 이것은 현대 패션의 연속성에서 패션의 형태와 크기, 구성요소, 공간의 변화에 기초하여 무한송고, 해체송고, 과잉송고로 고찰하였다.

2. 향유는 삶의 요소 혹은 삶의 환경으로서의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를 구성하는데서 나타나는 미의식으로, 쾌락을 넘어서 생산적인 의미를 가진다. 향유가 가진 요소들의 익명성과 무규정성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패션의 기능과 구조와 관련지어 기능적, 구조적 향유로 고찰하였다.

3. 역설은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요소들이 조화되어 있는 이율배반적인 상태를 지칭하며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생성하고 새로운 계열화 작업을 수행하며 새로운 사유와 새로운 의미로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미의식이다. 이것은 패션에 있어서의 시지

각과 공간관계와 관련하여 지각적, 공간적 역설로 고찰하였다.

20세기 후반을 지배했던 포스트모더니즘적 사유가 송고의 미의식으로 요약된다면 21세기 미래의 디지털 정보사회에서는 변화에 집중한 송고를 비롯해 대상간의 자유롭고 다양한 관계를 긍정하는 향유, 상호 공존할 수 없는 다층적 요소들을 공존시키는 역설 등의 관계지향적인 사유가 트랜스 미의식으로 주목받게 되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미학이나 철학적 연구에서의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여 패션과 결합시키는 결과론적인 형식의 학제적 연계가 아니라, 철학적 사유를 중심으로 연속성이라는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이를 실증적 시각자료인 패션을 통해 증명하며 더불어 이들에 내재된 미의식을 도출하여 새로운 21세기 감수성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창조적인 작업이다.

트랜스 미의식에 관한 연구는 20세기 이후 패션에서 나타난 레트로(retro-) 현상, 네오(neo-) 현상, 포스트(post-) 현상과 퓨전(fusion) 현상 등의 다양한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철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며 미학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대중매체와 관련되어 상품미학적인 측면에서 상업적인 효용성만을 평가했던 패션의 가치를 확대시켜 타 분야의 학문적 연구 성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자료로서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이를 폭넓게 활용되도록 하는데 일조할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로버트 루트 벤스타인 (2007). 생각의 탄생. 박종성 역. 서울: 애코의 서재, pp. 5-20.
- 2) 양희영 (2007).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연속성의 조형적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50-54, pp. 60-70.
- 3) 김진성 (1998). 베르그송과 푸루스트. 육사논문집, 제12집, p. 23.
- 4) 진기행 (1996). 블뢰즈 연구-베르그송론-. 한국민족문화, 1(9), p. 3.
- 5) 베르그송의 시간의 다양성은 잠재적, 연속적, 질적 다양성으로 대상들을 대립시키는 질서의 다원론이 아니라 대상 자체의 내부를 변화시키는 조작화의 다원론이다. 진기행 (1996). 앞의 책, p. 7.
- 6) 김형효 (1995). 베르그송의 철학. 서울: 민음사, p. 135.

- 7) 자료검색일 2007. 12. 5. 자료출처 <http://krdic.naver.com/>
- 8) 자료검색일 2008. 1. 13. 자료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64247>.
- 9) 자료검색일 2008. 2. 19. 자료출처 http://arin.pe.kr/we_st-4-10.htm.
- 10) 로버트 루트 벤스타인 (2007). 앞의 책, p. 360.
- 11) 호세 그르데이로 & 박영숙 (2007). 2020 트랜스 휴먼과 미래경제. 서울: 교보문고, p. 42.
- 12) 불프강 벨슈 (2005). 미학의 경계를 넘어. 서울: 향연, pp. 38-39.
- 13) Pathos: 비장한 것, 애처로운 느낌, 슬픔, 비애 등으로 해석할 수 있음.
김성남 (2004). 숭고미의 회화적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
- 14) 김민자 (2004). 복식미학강의 2. 서울: 교문사, p. 265.
- 15) 료타루 (1993). 지식인의 종언. 이현복 역. 서울: 문예 출판사, p. 171.
- 16) 타타르키비츠 (2006). 미학의 기본 개념사. 손효주 역. 서울: 미술문화, pp. 155-190.
- 17) 칸트는 이러한 물형식의 형태는 자연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자연의 혼돈과 난폭하고 불규칙적인 무질서와 황폐에서 숭고의 감정이 유발된다고 하였다.
심웅택 (2006). 질 블리즈의 F.베이건 회화 분석에 관한 소고. 논문 연구발표집, 13, pp. 54-57.
- 18) 김가람 (2005). 바넷 뉴먼 작품의 비재현성과 숭고.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7.
- 19) 자료 출처. *Fem* (2004), p. 237.
- 20) 최수연은 숭고의 감정은 고통과 폐락, 공포와 환희, 부정과 긍정이 혼합된 양면적 감정이며 이것의 미적 가치는 비장성, 무한성, 해체성이라 하였다.
최수현 (2003). 복식에 표현된 숭고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5-23.
- 21) 자료검색일 2007. 2. 13.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com/designer/>
- 22) 김상봉 (1995). 통기누스와 숭고의 개념. 서양고전학 연구, 제9집, p. 209.
- 23) 블러링(blurring)은 기존의 질서에 편입되었던 환경적 요소들을 과파하거나 해체하여 이미 존재해 온 대상들을 새로운 관계로 재조합하거나 재배열하는 것으로, 이들 사이의 '경계 흐리기'를 의미한다.
블립(blob)은 '윤곽이 흐릿한 것', '얼룩지게 하는 것', '유동 가능한 물방울', '무조작 땅어리', 자연의 '불규칙적이고 유기적인 생물의 형태'나 '최추가 없는'이라고 정의되며 실체가 없는 무 정형의 형태를 창조해낸다.
- 24) 자료검색일 2007. 8. 5. 자료출처 <http://google.com/corset/>
- 25) 이때의 윤획적 반복은 양적인 개념에서의 똑같은 것들의 반복이 아닌 질적인 반복으로, 이질적인 것들이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동시에 사라지고 다시 다른 것들이 생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의복에 서는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다른 아이템들 사이에서 다층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행 사이클이 이러한 윤획적 반복을 한다.
박지연 (2001). 칸트의 숭고개념과 예술적 적용. 서강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3.
- 26) 김영걸 (2005). 레비나스의 비대칭적 관계로서의 타자 윤리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1.
레비나스는 세계, 환경, 요소들을 동의어로서 사용한다. 그는 우리가 사물을 고립된 것으로 체험하기보다는 무엇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복합적인 세계로서 체험한다고 하였다.
- 27) 자료검색일 2007. 9. 18.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com/designer/>
- 28) 정미경 (2005). 레비나스의 타자의 무한성과 윤리적 주체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2.
- 29) 김상환, 홍준기 (2003). 라캉의 재탄생. 서울: 창작과 비평사, p. 100, p. 289.
이지현 (2005). 블리즈의 감성론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02.
- 30) 이진경 (2005). 철학과 굴뚝 청소부. 서울: 그린비, p. 416.
- 31) Quinn, B (2002). *Techno Fashion*. New York: Berg, p. 28.
- 32) Quinn, B (2003). *The Fashion of Architecture*. New York: Berg, p. 105.
- 33) 자료검색일 2007. 10. 13.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com/designer/>
- 34) 자료검색일 2008. 1. 23.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com/designer/>
- 35) 정순백 (2002). 블리즈의 사건 존재론.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0.
- 36) 동일성이 없는 차이는 대립과 모순이며 차이가 없는 동일성은 동어반복일 뿐이다. 차이와 동일성을 동시에 지니는 은유(metaphor)는 역설적 요소를 긍정하는 논리이며 자기 동일성의 원리를 따르는 연역의 논리와는 다르다.
- 37) 김상환 (1999). 예술가를 위한 형이상학. 서울: 민음사, p. 54.
- 38) 자료검색일 2007. 4. 16.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com/designer/>
- 39) 자료검색일 2008. 1. 25.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com/designer/>